

“법인법, 총체적 손질 필요하다”

시행 난관 조계종 법인법, 중앙종회서 실효성 질타

조계종 승려와 사찰이 만든 법인들을 종단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7차 임시회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총체 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종회의원 영담 스님은 “만약 종단 스님이 기존의 법인을 인수해 운영한다면 그 법인도 종단에 등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사찰과 종단 재산이 출연된 법인만을 법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애초부터 법인법을 반대한 이유가 법인의 정의부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동행부터 법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법을 제정한 이유는 선학원과 대학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 종교행위를 하는 법인만을 종단이 관리해야 한다. 공공행위를 하는 외부 법인들은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법인법을 총체적으로 손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직 스님도 “법인법을 만든 것은 종회의원들이다. 잘못된 것은 살피야지 질책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간 등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법

인법에 대한 수정이 오는 6월에 열릴 중앙종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사건을 전제로 종헌 9조 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종헌 9조 3항에는 “종단 승려가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종훈 스님은 “종헌 9조 3항이 먼저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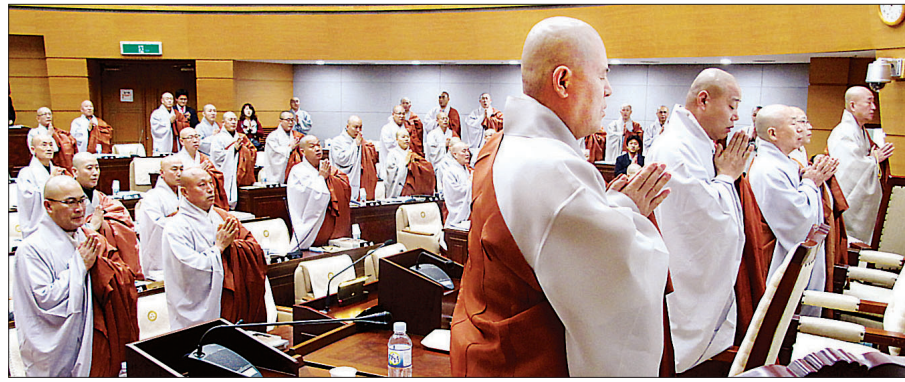
법인 등록 3개월 연장했지만

종단 법인 정의·규제 조항 등

문제 많아… 전반적 개정 시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재단이 출연한 법인 등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복지법인이나 공익 법인은 제외시키는 개정도 필요하다”며 “모법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법 시행 집행부서인 총무부가 법인 등록 시행을 1년 연장하려는 이유도 여기 있다. 현재 법인법으로는 제대로 된 법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학원과 같은 중립 수탁사 측 주장으로 3개월 연장에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197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그쳤다.

현재 수탁사 측은 법인법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종회가 이번 회기에서 총무원법 제24조에 명시된 ‘선학원 권리 보장’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법인법 시행으로 선학원에 법인 등록 압박을 하기 용의해졌다.

이날 총체질의에서도 정법 스님은 법인법 시행에 대한 종단 의지를 비롯해 종립학교법인 현황 파악과 법인법 적용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일부 스님들은 종단이 선학원과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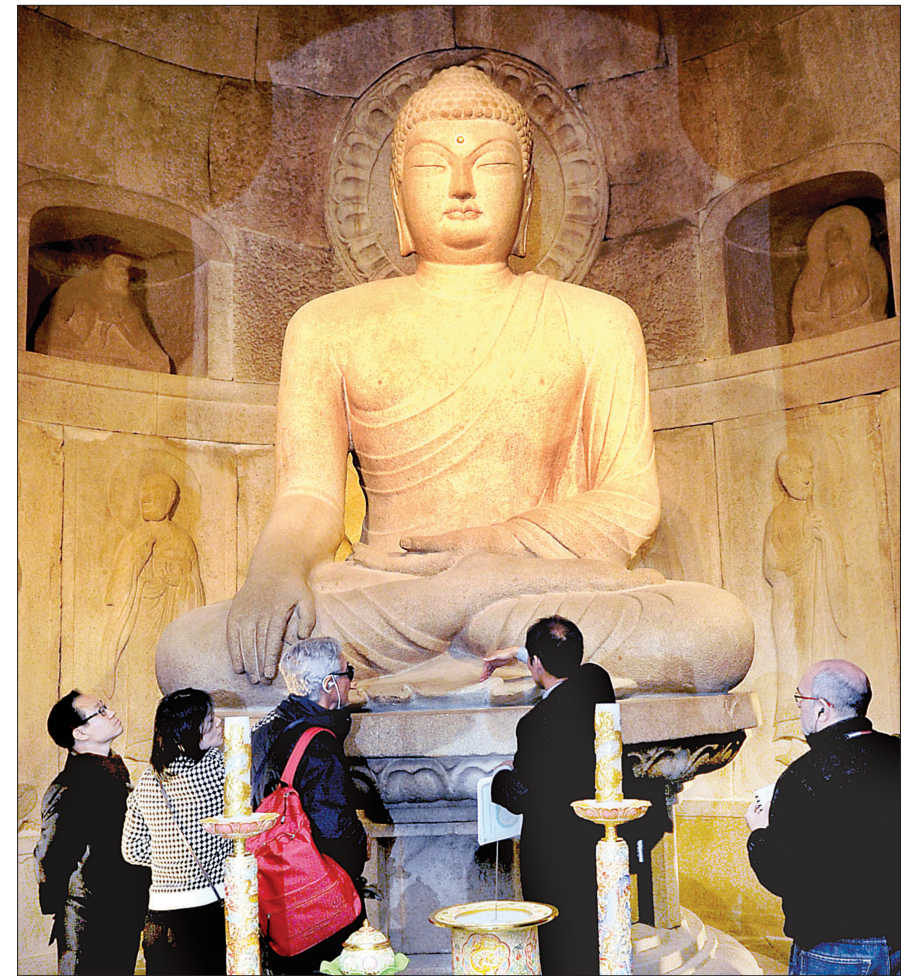
그럼에도 법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정법 스님의 서면 질의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스님은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승인해야 하는 것(제12조 정관 개정) △법인 임원을 총무원장이 요구하고 이사회의 처리를 강제

하는 점(제20조 임원 해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금지하는 것(제18조) 등은 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지적하며 총무원 법인법 개정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현재 법인법 공포 이후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 현황 확인과 법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에서 법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이어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 현황을 정부 각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조사해 올 상반기 중으로 법인 전체 현황 파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인법 개정을 적극 수렴해 법인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굴암 본존불 대좌를 살펴보고 있는 조르조 크로치·마르고피니 박사와 문화재청 관계자들.

“석굴암,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20일 문화재청·해외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올해 초 붕괴 위험을 지적받았던 경주 석굴암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정밀조사 결과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석굴암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석굴 전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20~21일 유네스코(UNESCO)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위원장 이혜은)와 함께 경주 석굴암 국제전문가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3월 20일 진행된 현지조사에는 이탈리아인 조르조 크로치박사와 클라우디오 마르고피니박사가 참여했다.

조르조 크로치 박사는 1995년 석굴암 석굴을 진단했던 구조안전분야 전문가로 현재 이코모스 건축유산 구조분석위원 위원회 명예의장이다. 또한 크로치 박사는 피사의 사탑, 이집트 카프라 피라미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 등 주요 문화재 복원에 참여하였다.

마르고피니 박사는 이탈리아 환경보호 연구소 지질학연구부 소속으로 북한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 요르단 페트라 암석 붕괴 모니터링, 몽골 비앙노르 고분 보존 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가다.

21일에는 이들 전문가들과 함께 석굴암 구조안전점검단 단장인 김동욱 위원(문화재청 건축분과위원회 위원장) 주축하에 국내 안전진단 전문가와 석굴암 석굴 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계종 문화부 부장 해일 스님을 비롯해 불교사 관계자 등 불교계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굴암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며 석굴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욱 단장은 “해외 전문가의 진단 결과 현재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하반기 조사에서는 돛 천장을 비롯한 석굴 전체로 범위가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무형유산’ 종목 직접 지정한다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조계종은 올해부터 가치가 높은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직접 종목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고시했다.

조계종은 먼저 사찰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불교무형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이를 통해 종단 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라지고 있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과 계승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접수방법은 본·말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승자나 전승단체 등은 종단에서 배포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교구 본사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정은 종무회의를 거쳐 총무원장 스님이 한다. 결과는 6월 및 12월에 통보한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 제17대 총무원장 춘광 스님 임명

3월 27일 취임식…감사원장에는 용암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제 17대 총무원장에 춘광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3월 21일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96차 정기총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춘광 스님·감사원장 용암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신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정 스님의 큰 뜻을 받들고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종단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사부대중의 수행풍토 진작, 교육·포교·문화·사회복지 등에 힘쓰겠다”고 결의에 찬 어조로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용암 스님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종무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종정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무행정의 기강해이를 살피고 종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게으름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종법상 총무원장과 감사원장 스님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이다. 이에 두 스님은 3월 21일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종회 안전 상에서 앞서 도용 종정 스님은 3월 16일 새 총무원장에 춘광 스님, 감사원장에 용암 스님을 추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임명된 총무원장과 감사원장 취임식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봉행된다.

신임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1971년 3월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득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과 수료 △대구 대성사·서울 성룡사·강



릉 삼개사·부산 삼광사(제3·4·5대)·서울 관문사(3·4대)·캐나다 토론토 평화사 주지 역임 △스리랑카국립승가대학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1997년) △교화원 의전실장, 규정부장, 교무부장 역임 △2013년 2월 2급 종사 법계 품수 △제14·15대 천태종 감사원장 △스님(재)대한불교천태종 이사,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985호 INDEX

시방세계

조계종 첫 법제별 연수교육 현장



5

종합

백담사 기본선원 지정 및 조실 추대

‘미구니 호계위원 선임’ 다시 좌결

함께가요 강의실

니체와 불교- 박찬국 서울대 교수

2·3

8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현 불 사 단 독 입 점

품 명		규 격 (가로 / 지름)	
촛 대	사 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 북 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 로	거 북 용 두	(大)	28.5cm×34cm
		(中) ㉠	21.5cm×29cm
		(中) ㉡	18.5cm×23cm
		(小)	15.5cm×18cm
다 기	다 기	(大)	26cm×20cm
		(中) ㉠	22cm×14cm
		(中) ㉡	20cm×13cm
		(小)	17cm×12cm
향 통	원 형	(大)	15.5cm×7.5cm
		(小)	11.7cm×5cm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사 TEL 02)2004-8216